

제2주제

환황해권 시대를 선도할
신도청 건설과 향후과제

서 철 모

(충청남도 정책기획관)

환황해권 시대를 선도할 신도청 건설과 향후과제

I . 도청이전의 정책적 의미

II . 도청이전이 충남의 경제 및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

1. 신도청도시가 신성장거점으로 부각
2. Tri-Area의 거점지역 형성
3. 북부권에 형성되는 산업벨트의 공고화 및 광역화 촉진
4. 도내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신도청에 도달
5. 신도청을 중심으로 하는 철도, 도로, 공항, 항만 등의 인프라구축 수요의 증대
6. 서해안 및 양대문화권에 대한 관광수요 증대
7. 도와 중국과의 직접 교역수요 증가

III . 도청이전에 따른 향후 과제

1. 지역별 특성을 살린 발전전략 추진
2. 금강권광역복합개발 추진
3. 지역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의 구축
4. 4대전략산업의 지속적 육성
5. 전통과 첨단이 조화되는 문화관광 육성
6. 농어업의 개성화와 현대화
7.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체계 구축
8. 자치역량강화

9. 시·군별 발전방향 제시

I . 도청이전의 정책적 의미

1. 정체성 확립

- 0 1989년 1월 1일 대전광역시가 분리되면서 충남도청이 도내가 아닌 대전광역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었으나
- 0 지난 2월 12일 도청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도청을 대전광역시에서 충남도민의 품에 안겨줌으로써 충청남도의 정체성 확보로 도민의 자신감 고취

2. 행정서비스 제고

- 0 충남도 중심부에 도청을 이전함으로써 접근성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높여 도정에 대한 만족도 증대와 행정경쟁력 확보 가능

3. 지역균형발전

- 0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대전(대덕R&D 특구), 청주(오송바이오), 천안·아산(전자정보)등 국가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광역클러스터에 의한 충남 내륙의 공동화 가능성 차단

4. 지역발전 선도

- 0 서해안 시대를 주도할 신성장 거점(核)을 형성하고 인근 지역과 네트워크적 광역클러스터의 중심축으로서 충남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5. 도청이전사업의 정책적 의미

- ①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과 정책적 효과를 같이 하면서
- ② 충남도민의 자신감 회복, 도민의 만족도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여 자발적인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고
- ③ 충남이 대한민국의 신행정중심으로서의 지정학적 여건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며
- ④ 북부권에 집적되고 있는 신성장 동력을 도균형발전의 매개체로 활용하고
- ⑤ 이를 토대로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으로 뻗어 가고자 하는 원대한 구상의 거보임

Ⅱ . 도청이전이 충남의 경제 및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

1. 신도청도시가 신성장거점으로 부각

- 0 행정도시와 서해안권을 연결하는 신도청 건설로 충남
성장의 가속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부각될 것임

2. Tri-Area의 거점지역 형성

- 0 2030년까지 계획인구 15만명 수준의 신도시가 건설되면
인근의 당진, 서산, 보령, 청양등 6개지역 인구
60만명(2005년말 기준)과 함께 연기·공주지역에
2030년까지 인구 30~50만명 수준으로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구 70만명에 이르는 천안·아산과
Tri-Area의 성장거점이 형성됨

3. 북부권에 형성되는 산업벨트의 공고화 및 광역화 촉진

- 0 세계적인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현재의 북부산업권은
더욱더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천안·아산의 디스플레이클러스터 및 자동차, 당진의
철강, 서산의 석유정밀화학·자동차산업 등은 이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과정에 진입한 것으로 보임

- 2004년말 충남지역 제조업체 종사자수 총 566천명 중 천안, 아산, 서산, 당진지역 종사자수가 323천명으로 전체 57%를 점유
- 2004년말 도내 사업체수 123,445개소 중 천안, 아산, 서산, 당진지역 사업체수는 59,485개로 전체 48% 점유하는 등
- 충남지역의 수출 및 지역경제의 선도를 북부산업권에서 담당하고 있음

0 홍성·예산의 도청이전지역에 지방행정의 중추기능과 교육·연구기관 등이 함께 입지하고 연기·공주의 행정도시에 국가행정기능과 40개소의 국책연구기관이 입지하여 기업, 대학, 연구시설의 유치에 유리한 여건이 형성되므로 북부산업권에 한정된 기업 등의 기관이전 수요가 도내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4. 도내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신도청에 도달

0 2009년 완공예정인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서천~공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도내 어디서나 신도청소재지까지 1시간대로 도달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내 인적·물적 이동의 편리성이 증대되고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5. 신도청을 중심으로 하는 철도, 도로, 공항, 항만등의 인프라 구축 수요의 증대

- 0 수도권 의 산업경제를 흡수하는 수도권 연결도로와 행정도시, 호남권, 환황해권을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 0 국가계획에 반영된 철도의 조기 건설을 통한 동서간 연결로 충북 및 강원권과 직결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 0 환황해권 중심도시 역할을 위한 민항유치와 산업단지의 물동량 처리를 위한 항만의 조기건설 등이 필요하게 될 것임

6. 서해안 및 양대문화권에 대한 관광수요 증대

- 0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서해안지역에 대한 관광수요가 백제 및 내포문화권으로 확대 될 가능성이 커짐

7. 도와 중국과의 직접 교역수요 증가

- 0 현재 충남지역과 중국을 직접 연결하는 교통망은 부족한 상태
 - 공항은 인천국제공항 및 청주공항
 - 항만은 인천, 평택 및 군산
- 0 북부권, 서해안권이 산업과 관광·문화의 중심으로 발전하게 됨에 따라 대중국과 연결하는 항만수요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며

- 2012년 이후에는 중국과 직결되는 국제공항 필요.

Ⅲ. 도청이전에 따른 향후과제

1. 지역별 특성을 살린 발전전략 추진

0 충남은 '95년 이후 4대권 개발경영전략을 추진

- 북부산업권 :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을 아산만권 개발의 거점, 서해안 개발의 교두보로 육성
- 서해안권 : 태안, 서산, 홍성, 보령, 서천등을 환황해권 교역의 전진기지, 해양·관광의 메카로 특화
- 백제권 : 공주, 청양, 부여 등을 전통문화·청정환경·첨단녹색산업 융합지대로 발전
- 금강권 : 금산, 연기, 공주, 논산, 계룡, 부여, 청양, 서천 등을 물류·유통과 첨단생명산업·도시근교 특화농업지대로 개발

0 2004년 이후 3가지 핵심 프로젝트가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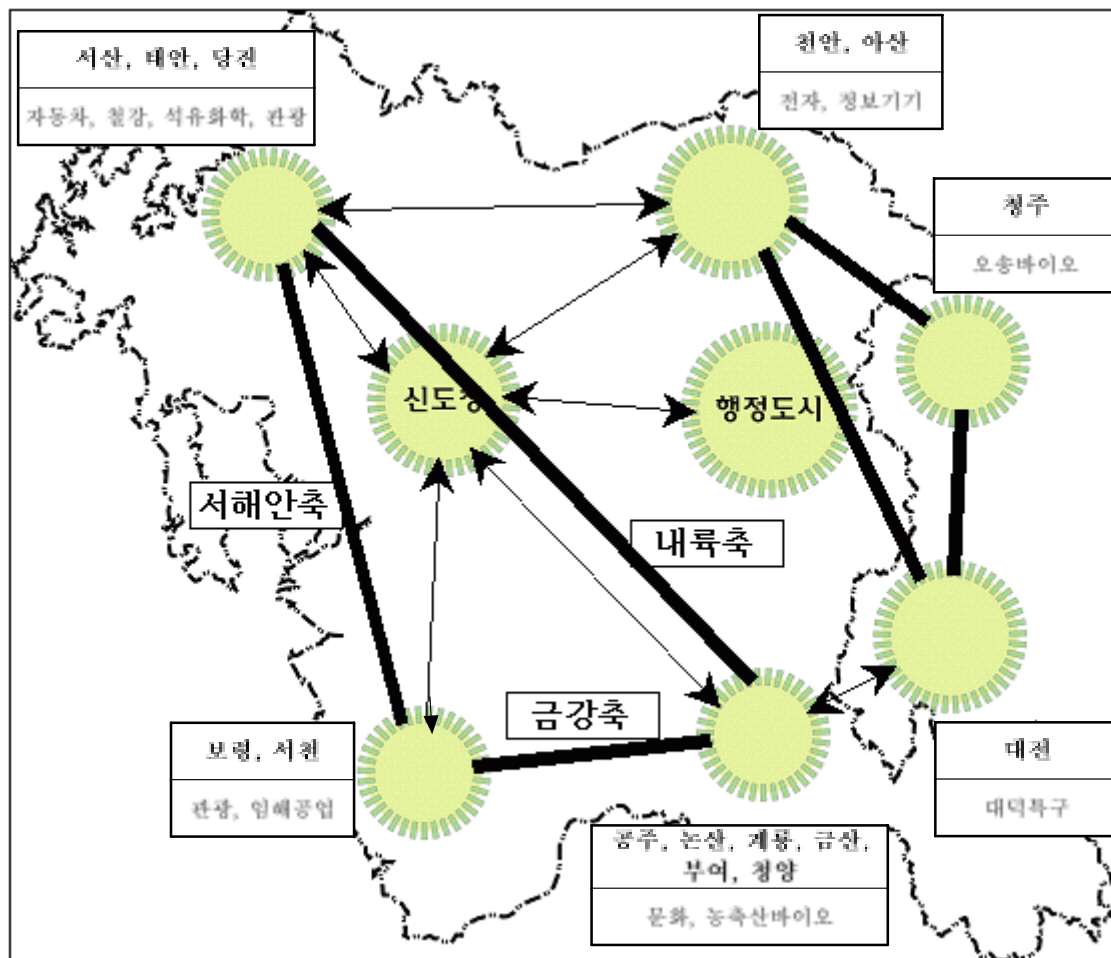
- 행정도시 : 연기·공주지역에 국가행정, 공공연구, 문화등 쾌적하고 품격높은 세계적 모범도시를 2,212만평에 8조 5천억원 투자 추진할 예정
- 내포문화권 : 보령시 등 6개시군에

해양·종교·서민문화의 메카로 2억 8,900만평에 1조
505억원 투지 추진할 예정

- 도청이전 : 홍성·예산에 행정도시권과 대응하여 충남의
균형발전을 선도할 성장거점으로 육성

0 **4**(4대권경영개발) + **3**(3대 핵심프로젝트)을 도 발전의
기본전략으로 추진하면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성장거점 네트워크 구축 〉



2. 금강권 광역복합개발 추진

0 성장잠재력 취약

- 금강에 접해있는 금산, 연기, 공주, 청양, 부여, 논산, 서천 등 7개 지역은 연기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인구 감소지역임
 - ▶ 7개지역 2004년말 인구 599,302명에서 2005년말 591,884명(약 1.13% 감소, 금산 -2.65, 부여 -2.18)
- 지금까지 대규모 기업 입지가 미약하고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구조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력화 취약
- 교육, 문화 등의 이유로 대전등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은 일단락되고 있으나 노령인구의 사망 등 자연적 감소가 주 원인

0 개발방향

- 백제문화, 관광, 산업도시, 환경, 자연경관, 주운 등 종합개발
 - ▶ 행정도시 금강계획 수용, 산림환경연구소, 공주·부여·논산의 역사문화자원, 서천해수욕장·장항산업단지, 대덕밸리와 연계한 첨단산업·의료·축산바이오복합단지 조성 등

- ▶ 공주의 산림박물관, 공산성·무녕왕릉, 박물관, 자연경관
- ▶ 부여의 백제역사재현단지·백제역사문화관·서동요세트장
- ▶ 논산의 군사박물관, 강경 젓갈, 논산·금산 유교문화 유적
- ▶ 서천의 장항산업단지, 기벌포문화, 금강하구 철새도래지 등
- ▶ 청양의 축산테크노파크의 축산바이오 산업, 청정자원 개발

- 금강변에 경전철 도입방안 연구

- ▶ 일차적으로 관광을 주 목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검토
행정도시~공주~청양~부여~논산~서천간 100km
- ▶ 장기적으로 교통수요를 확보하여 남부권
동서연결 철도망으로 활용

- 근교 및 관광농업 활성화와 다양한 형태의 도시근교형 전원주거단지 개발

3. 지역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0 고속도로

-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IC~서천IC간 6차로 확장 추진
- 건설중 고속도로의 조기완공 추진(당진~대전, 서천~공주)

- 동서연결 고속도로 조기건설 추진(태안~당진~천안, 보령~공주, 공주~청주)

0 국도 및 지방도 확충

- 서천~대전간 남부권 고속화도로 건설추진
- 신도청~당진항 연륙교간 내포문화도로 건설
- 신도청~청양~부여~웅포대교간 국도29호선 4차로 확장
- 신도청~청양~논산~금산간 지방도 확장
- 신도청~서산비행장~태안기업도시~태안간 공항도로 건설

0 철도

- 금강관광경전철(행정도시~공주~부여~서천)
- 수도권 전철 신도청까지 연장운행 추진
- 충청선(보령~조치원), 동서산업철도(안흥~천안)
- 서해선(화성 야목~예산) 조기 건설

0 공항·항만

- 서산 군비행장에 민항기 취항 추진
- 당진항은 국제물류 및 중국과의 정기여객선 취항
- 대산항은 국제물류 전용항 육성
- 보령신항은 관광선 취항 검토, 장기적으로 국제물류항 육성

4. [4대 전략산업]의 지속적 육성

① 전자·정보(Display)산업

-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한 디스플레이·전자·정보기기 산업을 클러스터화 추진

- Display 산업단지 Belt화 → 관련업체 집적
 - ▶ 완료(89만평) : 천안3(25만평), 탕정1(61만평), 은하1(3만평)
 - ▶ 조성 중(170만평) : 탕정2, 천안4,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
- 디스플레이 산업지원센터 건립 16,260평에 건평 3,006평을 '04.12. 24 착공하여 금년 6월 완료 예정

②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

- 아산·서산·당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자동차 부품산업을 육성

- 자동차·자동차부품 산업단지 조성
 - ▶ 완공(783천평) : 아산 인주2(548천평), 서산 성연(235천평)
 - ▶ 조성 중(1,577천평) : 서산(1,200천평), 서산2(276천평), 서산명천(44천평), 당진도곡(57천평)

③ 「첨단문화」산업

- 천안·아산지역에 집중된 문화산업클러스터를 공주·부여·논산등 원천문화자원을 보유한 지역과의 네트워크적 연계방안 마련

- 대표적 high risk, high return 산업인 문화산업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개발, 콘텐츠 창작, 마케팅 등 특성화 할 수 있는 지역의 능력개발
- 부산, 부천, 춘천, 광주, 전주 등 영상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지역과의 경쟁력 확보방안 마련

-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 (15만평, 730억원)
 - ▶ 現 공정율 : 단지조성(547억) 80% / 기반시설(183억) 100%
 - ▶ 2010년 단지조성 완료 /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창작관 건립 등
 - ▶ 유치업종 : 애니메이션산업(Game, 광고, 팬시, 멀티미디어 등)

④ 농·축산 「바이오」 산업

- 기능성식품·화장품, 바이오제품의 최대 소비처인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 여건과 대덕테크노밸리, 오송바이오단지와 연계한 바이오제품 생산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 축산바이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농업바이오(기능성식품), 인삼·약초바이오(바이오신약)등 자원활용형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의 마련과
- 남부지역 주력산업으로서의 고용창출을 위한 의료복합단지 조성의 활성화 및 연구·산업화기관의 유치

-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예산군 신암면 종정리 210천평)
 - ▶ 벤치농업관, 농업정보교육관, 각종시험포장 등
- 축산바이오 테크노파크 조성(청양군 정산면 학암리 일원 251천평)
 - ▶ 사업규모 : 3개사업 427억원(국비 188, 도비 239)
 - ▶ 형질전환복제돼지연구센터(1개소), 충남대 동물사육장 이전 등
- 동물자원사업화지원센터 건립(논산시 내동부지 2,145평, 연건평 1,139평)
 - ▶ 사업비 76억원 (국비50, 지방비 22, 민자 4)
 - ▶ 동물사료 백신, 첨가제 개발, 축산분뇨 처리 관련 제품개발 등
- 인삼약초 클러스터
 - ▶ 금산인삼종합유통센터(금산읍 신대리 일원, 부지 21,544평, 건평 3,184평)
 - ▶ 269억원(국비188, 도비31, 군비50)
 - ▶ 인삼의 가공·판매·수출 및 검사·품질인증 등

5. 전통과 첨단이 조화되는 문화관광 육성

0 테마형 문화관광벨트 육성

- 공주·부여·논산의 역사문화자원과 금강의 생태축을 연계한 특화전략의 구체화
- 내포문화권과 백제문화권의 상생적 네트워크화
 - ▶ 안면도 국제관광지의 조기 가시화와 태안 기업도시, 서산, 홍성, 보령, 서천 등 서해안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광역 관광클러스터 구축

- ▶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
- ▶ 안면도국제꽃박람회장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방안(로맨스 축제) 지속추진
- ▶ 예산 농업벤처박람회, 금산인삼엑스포 등을 통한 농업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지역브랜드의 지속관리
- ▶ 계룡군문화엑스포를 활용한 군수·국방산업의 역내유치 및 활성화
- ▶ 백제역사재현단지 완공에 맞추어 백제역사비엔날레 개최방안 강구(공주와 격년제)

6. 농어업의 개성화와 현대화

- 0 농업개방시대에 맞설 수 있는 프로농어민 육성
- 0 농어촌경관, 체류형 체험농어업을 활용한 그린투어리즘의 기반 확충
- 0 농어촌지역사회 개발을 자생적으로 추진할 현대적 의미의 새농어촌 지도자 양성

7.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체계 구축

- 0 도청이전을 통한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잠재력을 광역적으로 공유하면서 지역통합 이룩
- 0 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시민단체,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지향적 거버넌스체계 구축으로 각종 현안과제에 대한
공동대응 능력제고

8. 자치역량 강화

- 0 유사미래 최대의 발전 호기를 살릴 수 있는 지역의
정책개발과 구체화 능력향상
- 0 다양한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효율적 동원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정의 목표달성도 제고

9. 시·군별 발전방향 제시

- 0 시·군의 발전방향은 상위의 지역계획에 부합 하도록
개발사업간에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특성을 특화 추진